

쉐어라이트 배포 보고서

수신: 박은현 (쉐어라이트 대표이사님)

발신: 장홍태 (성경번역선교회 선교사, Area Director for South & Islands Asia, SIL International)

일자: 2019 년 12 월 3 일

쉐어라이트 대표이사님과 관계자님들께,

빛의 사각시대에 놓여 소외된 지구상의 이웃들과 어린이들을 돕고 섬기시는 귀사의 사역에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. 지난 7 월 말경에 보내주신 쉐어라이트 24 개 유닛을 인도네시아령 파푸아의 정글에 사는 왓본부족민들 중 지도자와 교사들에게 배포하였고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.

요청인 및 배포 책임자 이름: 이금숙 (성경번역선교회, GBT 및 SIL International 회원)

제목주소 및 연락처:

- 국외 – GumSuk Jang, Komplek PTC di atas Bukit, Jalan Sosial, Sentani, Papua 99352 INDONESIA Tel: +62 811 483 295
- 국내 – 이금숙 05773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4 길 12, 301 호 Tel: 010 4413 3935
- Email: gumsuk_lee@sil.org

배포 및 사용처: 인도네시아령 파푸아, 왓본 부족들의 마을들 중 망글룸
(Mangelum, -5.329822, 140.400796)



수령 및 배포 수량: 24 유닛

배포시기: 2019 년 8 월 마지막 주 - 9 월 첫 주

수혜자 및 사용목적, 수혜자들의 반응

배경: 인도네시아령 파푸아의 내지 부족들은 아직도 전기와 전화 등 문명의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채 정글의 외진 곳에서 생활합니다. 디굴 강 상류에서 흩어져 생활하는 완본부족은 그들 중 한 족속입니다.

이금숙 선교사는 GBT 와 SIL 과 더불어 일하는 성경번역/문해개발 전문가로, 성경번역과 지역 언어개발, 교육 등으로 2003 년부터 지금까지 완본 부족민들을 돕고 있습니다. 장홍태 선교사와 함께 완본 언어의 음운론과 철자법 개발 (2006 년), 문법 및 기본 사전 편찬 (2007 년)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번역하였으며 지금은 예수영화 등 미디어의 보급이 한창입니다. 이제는 그 성경과 관련 교재의 보급으로, 지역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자신들의 글과 말을 활용하여 교육과 신앙에 발전과 성장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려고 합니다. 특히 지난 8 월 말에 처음 개설된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를 시작으로, 완본 지역에 영적, 사회적 회복과 발전을 가져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

수혜자들: 금번에 도와주신 웨어라이트의 전등세트는 전기가 없는 완본의 11 개 마을 주민들 중, 지난 8 월 말에 주일학교 교사로 지원하여 수료한 열 명의 완본 현지인 선생님들, 그 나머지는 완본 각 마을들에서 봉사하는 동리의 지도자들, 지역교회의 목회자들, 그리고 변변한 학교는 없지만 학교의 임시교사로 봉사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. 그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짬을 내어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저녁에 해가 진 후에도 책을 읽거나 가사를 돌보아야 할 때가 많은지라, 큰 도움이 되겠다며 기쁘게 수령하였고 또한 무척 감사하다는 인사를 즉시 전해 왔습니다.

수혜자들의 반응:

왈로리나 (35 세, 홀어머니): “남편이 떠난 후에 적적하던 차에 저는 이번에 완본어 로마서 번역을 점검하는 일에 초대를 받았어요. 2 주간의 일정이 마무리 된 후, 저는 제법 완본어로 된 글을 읽고 쓰게 되었는데 그것을 더 열심히 읽고 또 마을의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열심이 생겼지요. 보내주신 이 자그마한 전기 등으로 제가 일과를 마친 후에 집에서 책을 읽거나 주일학교 공부 준비를 할 수 있겠어요. 먼 곳에서 이런 지원을 해 주시니 무척 감사해요!” [아래 사진의 첫째 줄 세번째 사진의 오른 쪽 여성]

와노 (11 살, 남자 아이): “와, 이 조그만 컵이랑 초랑, 이것들이 전기를 만들어요? 신기해요. 고맙습니다!” [아래 사진의 셋째 줄 오른쪽]

까약 (45 세, 완본 주장): “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 이렇게 우리도 글자를 갖게 되고, 하나님 말씀이 우리 글로 쓰이고 읽히게 되었어요. 5 시 반만 되면 어둑해지는데 정글에서 우리의 밤은 늘 어둡고 조용했죠. 한국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읽을 수 있는 말씀과 그 책에 밤이면 빛을 선사하는 귀한 선물을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. 당신들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입니다. 고마워요!” [아래 사진의 첫째 줄 가운데 오른편 남성]

사진들: 원본 크기의 사진은 각각 사진을 클릭하시면 인터넷의 구글 드라이브에서 원본화질로 보실 수 있습니다

